"4·3 희생자 직권재심 청구 일원화 검토"

강종헌 신임 제주4·3직권재심합수단장 기자 간담회

"유족들 요청 고려해 일반재판 합동수행단으로 이관"

대검찰청이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기관을 제주지방검찰청에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하 합동수행단)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종헌 합동수행단 신임 단장(57)은 8일 수행단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4·3유족들의 요청과 분산된 직권재심 업무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검찰 내부 의견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 업무도 합동수행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4·3 희생자로 결정된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2개 기관·기구가 맡아 진행하고 있다. 군사재판 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합동수행단이,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에 대한 직권재심은 제주지방검찰청이 맡는다. 합동수행단은 4·3 직권재심 업무만 수행하는 검찰 내 전담 기구로 지난 2021년 11월 출범했다.

제주4·3특별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사회의에 회부된 수형인 희생자로 한정해 명시하고 있지만 법무부는 나머지 4·3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권리 구제를 위해 지난해 8월 직권재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로 확대하기로 결정, 해당 업무를 제주지검이 맡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다른 사건도 처리해야 해 직권재심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이 떨어지고 4·3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 단장은 '일반재판 직권재심 업무를 합동수행단이 맡으면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업무가 이관될 것을 대비해) 수사관 1명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종헌 신임 합동수행단장이 8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이날 강 단장은 앞으로 남은 직권재심 업무의 가장 큰 난관으로 현재까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군사재판 수형인을 꼽았다. 현재 군사재판 수형인 명부에 기록된 2530명 중 2437명(96%)에 대한 신원은 파악됐지만 나머지 93명은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 끝내 명예회복을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들은 대다수 연좌제를 우려해 수사기관에 다른 이름을 말하는 바람에 실제 이름과 수형인 명부상 이름이 다르거나 어릴 때 불리던 이름으로 명부에 올라온 경우다. 신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강 단장은 "객관적 증거로 신원을 판정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며 "신원 확인을 위한 다른 특단의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한 끝내 이들의 신원을 밝혀내기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다.

강 단장은 제주 출신으로 지난 6일 신임 합동수행단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날 취임 소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최근 3년 해녀 안전사고 46건 발생

도,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심정지가 약 절반인 21건
"3~6월, 전체 발생의 44%"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안전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봄철을 앞두고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최근 3년간 총 46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사고가 2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현훈·훈통(어지러움) 6건(13%), 호흡곤란 5건(10.9%) 순이다.

연령별로는 70대 27건(58.7%), 80대 13건(28.3%), 60대 3건(6.5%) 순으로 70세 이상 사고 비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11일에도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해상에서 물질을 하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제주 해녀 3437명 중 70세 이상이 2146명으로 62.4% 차지한다.

특히 소라 작업과 우뭇가사리 채취 시기인 3~6월에 전체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43.5%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도소방안전본부는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미리 발령해 유관기관 공조 체계와 출동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어촌계를 중심으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 향상을 위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잠수 조업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안전 장구 착용 및 준비운동 등 잠수 조업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민기자

학생들 동물학대예방교육 받는다

도교육청, 인성교육 일환 첫 동물사랑교육 추진
지역사회 연계한 독서마라톤 사업도 시범 운영

동물 학대 사건과 동물 유기 문제가 끊이지 않는 제주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물학대예방교육이 이뤄진다. 제주도교육청은 8일 동물사랑교육 추진 등을 담은 2023 인성교육 역점 과제를 내놓았다.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생명존중 의식과 생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동물학대예방과 생명존중교육을 처음 실시한다. 울산, 서울 등 타 시·도 사례 등을 참조해 체험 중심의 교육활동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제주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에서는 '동물사랑교육'을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보호,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의 관리와 동물복지 등에 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춰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 있다. 해당 조례엔 도교육감이 매년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사랑 체험 교육이 학생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또한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제주학생, 책의 바다로'를 주제로 독서마라톤도 상반기 시범사업으로 새롭게 운영한다. 제주공공도서관, 서점 등 지자체, 지역사회와 연계해 추진할 사업으로 독서 미션을 통해 포인트를 쌓은 학생의 이름으로 빠르면 내년 1월쯤 해외 한국학교에 책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기존 1학생 1악기 연주(86교), 지역예술가 협력 예술 수업(85교), 학생 오케스트라와 문화예술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합창반(30교), 연극동아리(15교), 뮤지컬 동아리(8교) 등 학교 예술 동아리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진선희기자

군용차 타고 부대 이탈 집유

군용차를 타고 부대 밖으로 이탈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군용 자동차 불법 사용 및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 봉사도 명령했다.

해군 소속 병사였던 A씨는 지난해 1월 2일 오전 3시27분쯤 동료 병사 5명과 함께 군용 승용차를 타고 세 차례에 걸쳐 부대 밖으로 무단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A씨의 동료 병사는 이날 술을 마시고 군용차량을 몰다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포함한 다수의 병사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다"며 "일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상민기자

소풍나온 아이들 포근한 날씨를 보인 8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을 찾은 초등학생들이 해변을 걷고 있다. 이상국기자

해경, 물놀이 명소 생이기정 '출입 통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제주시 한경면 당산봉 생이기정이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부터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에 위치한 당산봉 생이기정 인근 육·해상 일부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생이기정'이라 불리는 당산봉 일대는 SNS상 숨겨진 물놀이 명소로 확산돼 많은 물놀이객이 방문하고 있지만 안전요원이나 안전관리시설물이 없어 사고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해경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후 출입 통제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도영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윈터프린스: 차별화된 맛과향, 껍질 벗김이 쉬워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만감류. 연내수학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강자!
- 탐나는봉: 미국에도 2019년 식물특허 등록완료! 색상이 진하고 당함량이 높고 식감이 우수. 기존 한라봉(부지화)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은 우리 품종.
- 사라향: 껍질 표면이 매끈하면서 두께가 얇으며 기존 천혜향보다 과육 밀도가 높으며, 2월 중하순 성숙하며 과즙이 풍부하면서 고유의 향기가 있음.
- 하례조생: 조숙 온주밀감으로 기존 궁천조생보다 같은 시기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아 11월 고품질 감귤을 생산 출하할 수 있는 품종,
- 제라몬: 함량 및 높아 향기가 진한 레몬 품종 내한성이상대적으로 강한 걸로 평가되는 품종.
- 미니향: 소과형(30g내외) 감귤로 당도가 매우 높으며,기존 품종과는 차별화된 고품질 품종.

과수농가 보급품종(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황금향, 유라조생 궁천, 흥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가정원예(조경수)(2~7년생): 하귤, 팔삭, 세미놀, 금귤, 당유자, 아마나스 미니몬, 국내산 탱자묘목 판매(신고번호 03-0182-2020-3)

❖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전시판매장 개장!!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트묘, 화분묘 분양
사전예약 주문생산: 탐빛1호, 선킹, 설봉미, 미니몬, 무봉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종묘전문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 010-4736-2479 / 010-6500-2329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1(수산리735)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감귤묘목

유라조생	2~3년생
유라실생	5년생
천혜향	3~5년생
황금향	3~5년생
한라봉엠	3~6년생
남진해	3~4년생
성전온주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탐라봉	3년생
윈터프린스	3년생
감평	3년생
진지향	3년생
탱자묘	1년생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